

숙면 돕는 ‘슬립 테크’… “융합보다 기본으로 승부”

동강대 BI센터 입주기업 ‘아이월’

단순화·디자인으로 경쟁력 확보
‘향’ 관련 시제품 개발해 보완 중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슬립 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 입주기업인 ‘아이월’이 인공지능(AI)

가전 개발로 눈길을 끌고 있다.

슬립 테크는 ‘Sleep’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 양질의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다. 숙면을 위한 공간, 가전, 가구, 화장품 등 관련 분야가 광범위해 다 AI 등의 첨단 기술과 융합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적극 뛰어들고 있는



아이월에서 개발한 빛과 소리 향기를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 제품.

아이월 제품

상황이다.

박선민(사진) 아이월 대표는 슬립테크 인공지능 가전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21

년 1월 창업한 후 아이월만의 아이디어와 색깔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시중의 슬립 테크는 리클라

이너, 스마트 침대,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 등 대기업 위주의 고가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보인 제품을 창업초기 기업들이 기술로 뛰어넘는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스타트업의 현실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월은 가장 기본적인 제품을 통해 ‘심플함’을 앞세워 스타트업에서 도전할 수 있는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초창기에는 수면에 효과가 있는 향이나 소리, 빛 등을 융합한 기술로 제품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많은 부분을 호환하다 보니 단기뿐 아니라 AS 문제, 자금력 등의 벽에 부딪혔다”며 “그래서 오히려 단순함과 디자인으로 승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누군가가 창업에 도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며 “창업 관련 정부지원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 사업 선정을 위해 어려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무리한 계획으로 실패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동강대 BI센터에 입주한 아이월은 광주지역에서 동강대 BI센터를 비롯해 2개 기관에서만 수행하는 ‘2023 BI보육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하며 시제품 개발과 투자, 상용화 등 지원을 받고 있다. 전자기술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 역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박 대표는 “수면에 효과가 탁월한 향 관련 시제품을 개발해 보완 중”이라며 “내년에는 아이월만의 개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맥쿼리한국인프라, 한국건설부동산산업대상 장관상

인프라 펀드에 개인 수혜 길 열어

㈜해양에너지는 투자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가 최근 한국건설부동산산업대상에서 부동산금융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에너지에 따르면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 20여년간 국내 최대 공모 인프라 펀드인 맥쿼리인프라 및 다수의 펀드를 운용해 오면서 국내 초기 인프라시장을 개척하고 업계를 선도해 왔다.

특히 도로, 항만, 철도, 도시가스 등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인프라 펀드분야에 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투자하고 펀

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광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및 디지털인프라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체계에 따라 올해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 동종업계 최초로 GRESB(글로벌 실물자산 지속 가능성 벤치마크)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Net-Zero 2040 프로젝트 추진, ESG위원회 지속 운영 및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광주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여수·군산·제주세관 소재 4곳

광주본부세관은 관내 여수·군산·제주세관에 소재하는 4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2024년 3월 화물

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세관별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광주 본부세관 또는 관할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관심있는 비영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23) 또는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지역 기업 60% “작년보다 올해 수출 더 어려워”

광주상의, 수출기업 경기 전망

“다각적 수출지원제도 마련 필요”

광주·전남 수출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수출실적이 전년도보다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수출기업 경기전망’에 따르면 지역 수출기업들은 올해 체감 경영실적에 대해 61.2%(71개사)가 ‘전년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여기는 기업은 29.3%(34개사), ‘전년도보다 호전됐다’고 답한 기업은 9.5%(11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지난해보다 올해 수출환경이 나빠졌다고 체감한 것인데, 수출실적 역시 전년도보다 ‘수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이 48.3%(56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년도와 비슷하다’(38.8%, 45개사), ‘수출이 증가했다’(12.9%, 15개사) 순으로 답했다.

‘수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들은 올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9.2%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체감 경영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35.3%(41개사)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악화될 것’(32.8%, 38개사), ‘호전될 것’(31.9%, 37개사) 등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전망 또한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이 38.8%(4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34.5%, 40개사),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26.7%, 31개사)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주요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해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51.7%, 60개사)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고금리 지속’(20.7%, 24개사), ‘유가·환율 상승’(19.0%, 22개사), ‘미·중 갈등’(7.8%, 9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5.5%, 7개사) 등이 꼽혔다. 이외에 대우위니아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도 리스크로 지목됐다.

대내외적 여건 외에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가 상승’(51.7%, 60개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으며 ‘신규 판로개척 애로’(18.1%, 21개사), ‘대출금리 부담’(15.5%, 18개사), ‘물류비 상승’(10.3%, 12개사), ‘인건비 상승

(10.3%, 12개사)’, ‘통관 애로’(4.3%, 5개사), ‘판매대금 회수 지연’(4.3%, 5개사)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리스크 및 경영애로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주로 ‘비용 절감 및 긴축경영 돌입’(51.7%, 60개사)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거래처 다각화’(33.6%, 39개사), ‘기준 거래처 관리 강화’(31.0%, 36개사), ‘정부 지원사업 활용’(22.4%, 26개사), ‘내수비중 확대’(12.9%, 15개사), ‘제품가격 인상’(5.2%, 6개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60.3%, 70개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환율·물가 안정’(44.0%, 51개사), ‘신흥시장 개척 지원’(29.3%, 34개사), ‘수출규제 완화’(12.9%, 15개사), ‘수출정보 및 정책 안내’(10.3%, 12개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의 수출 및 경영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지원제도 마련 및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전남지역 소비심리 ‘악화일로’

한은 소비자동향 조사

1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개선됐지만 19개월째 기준치(100) 이하로 비관적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3년 1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중 92.1으로 전월 대비 2.8p 상승했다.

광주·전남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5월 102.3 △6월 93.2 △7월 80.6 △8월 85.4 △9월 87.3 △10월 83.4 △11월 82.1 △12월 84.3 △2023년 1월 86.4 △2월 85.9 △3월 85.6 △4월 89.9로 △5월

90.7 △6월 94.0 △7월 97.8 △8월 94.3 △9월 92.5 △10월 90.5 △11월 89.3 △12월 92.1이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5월 이후 19개월간 비관적 국면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인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2003~2021)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가계 재정상황을 말해주는 현재생활형편CSI(82)는 전월과 동일하고 생활형편전망CSI(86)는 전월 대비 2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97)는 전월 대비 4p 상승하고 소비지출전망CSI

(108)는 전월과 동일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CSI(59)는 전월 대비 3p, 향후경기전망CSI(69)는 전월 대비 4p 각각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70)는 전월 대비 3p 상승했고 금리수준전망CSI(108)는 전월 대비 11p 하락했다.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의 경우 현재가계저축CSI(89)는 전월 대비 3p상승하고 가계저축전망CSI(89)는 전월 대비 2p 상승했다.

현재가계부채CSI(103)는 전월 대비 2p 하락하고 가계부채전망CSI(104)는 전월 대비 4p 상승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지역 도시가구 중 600가구(응답55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2~19일 소비자동향조사를 했다.

최권범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